

# 가을장마에 채소류 가격 오름세

젖은 비에 일조량 부족 생육여건 악화 산지출하 급감  
상추 폭등 조짐... 건고추·무, 공급 증가 가격 안정세

때늦은 가을장마 때문에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표적인 쌈 채소인 상추 가격이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채소류 가격 상승은 잦은 우천에 의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생육여건이 악화돼 산지 출하 물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

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상추를 비롯해 호박, 배추, 오이 가격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건고추와 무는 햇품 출하와 출하지역 확산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기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청상추(100g 기준) 소매가격은 1

년 전 9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가격이 144.4% 폭등했다. 2주전(1,500원)과 비교해도 가격은 46.67% 상승했다.  
애호박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애호박(17개)은 2주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33.33% 올랐다.  
배추와 오이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2주전 1포기(2.5~3.5kg) 당 5,000원에 거래된 배추 가격은 6,000원으로 20% 올랐다. 오이(취청·10개)는 9,000원에서 1만원으로 가격이 11.11% 상승했다.  
과일류 중 방울토마토는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생육부진으로 오름세를 보인 반면, 배는 출하교체가 공급물량 감

소에도 다양한 햇과일 반입에 따른 소비분산으로 내림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수급물량 확대에 치솟던 계란값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계란값은 특란(30개·1판) 기준 2주 전 대비 2.70% 내린 7,200원에 거래됐다.  
aT 관계자는 향후 2주간 수급 전망에 대해 "애호박과 파프리카 등은 추석 명절 수요증가로 오름세가 예상되고, 사과와 배 등은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겠지만 작황호조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추석선물 세트 '소포장' 인기  
광주신세계 기프트 세트 선배

광주·전남지역 1인 가구 비율 증가에 발맞춰 지역 유통기도 올해 추석 선물 세트로 '소포장'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8일 광주신세계와 동계정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광주·전남권 1인 가구 비율은 32.6%로 2000년 17.7%에 비해 14.9% 증가했다. 이는 충청권(33.1%)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1~2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소포장 기프트' 추석 선물세트를 내놨다.  
정육 세트의 경우 1.5~2kg으로 구성하고 있던 것을 1kg세트로 낮췄으며, 과일 세트는 12개로 구성하고 있던 것을 6개로 낮췄다.  
보통 4인 기준의 세트를 구성해 판매했던 것을 1인 가구를 감안해 절반 수준의



광주신세계는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1~2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소포장 기프트'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세트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소포장 세트를 구성했다.  
소포장 기프트 세트 상품으로는 한가족 알뜰세트 2호(1kg), 사과 배 실속 세트(사과 3개, 배 3개), 사과 실속 세트(6개), 새싹보리 짬 부세굴비(5미), 신세계 알뜰전복세트(8미) 등 다양한 세트상품을 구성했다.  
/오지현 기자

산림조합, 벌초 대행 서비스

산림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과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벌초와 묘지관리는 선조에 감사사를 표하는 중요한 생활문화이자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도 어려워져 전문적인 벌초 대행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와 묘지 조정 등 묘지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와 묘지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하는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 도우미 사용료는 회원조합별 기본 단가를 책정해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미애 기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무역회관에서 'KITA Membership Day'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내 헬스케어 기업들과 함께 '광주전남 헬스케어 수출기업협의회'를 발족했다. /무협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헬스케어협의회' 첫 발

전략산업 육성 앞장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무역회관에서 'KITA Membership Day'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내 헬스케어 기업들과 함께 '광주전남 헬스케어 수출기업협의회(협의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료용 봉합사, 피부미백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 수출 경험이 있는 선배 기업들 멘토로 초청해 수출 희망 기업들에게 수출 경험

및 노하우 공유와 네트워킹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향후 정기적인 네트워킹과 정보교류, 세미나 등을 통해 헬스케어를 광주전남의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꽃별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은 "이번에 참여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선후배간 멘토링을 계기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소통 기반 구축과 수출 마케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TP, 지식재산 창업클럽 성료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전남 지역 내 창업문화 확산과 예비창업자의 창업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센터 3층에서 도내 예비창업자 및 IP디딤돌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전남 지식재산(IP)창업클럽'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창업클럽에서는 김성운 특허법인

을원 버리사가 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상표)의 중요성과 그 상표 보호 방법에 대한 실습을, 정문수 이드로경영파트너스 대표가 창업 비즈니스모델 교육 등 전남 창업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전남창업경제혁신센터의 전남오픈창업과 연계한 전문가 멘토링(8건)이 진행됐다.  
/오지현 기자

## 광주·전남 산업별 대출 증가폭 줄었다

금융·보험업 크게 감소 전년 하반기보다 축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2021년 상반기 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별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40조 9,269억원(총대출금의 57.4%)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 1조9,081억원으로 전년 하반기 6,467억원에 비해 급증한 후 같은 해 하반기 1조

3,387억원, 올해 상반기 8,249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해 상반기 산업별 대출금은 건설업(-220억원→-2,832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산업별 대출금의 70% 가량을 차지한 서비스업은 1조 3,014억원에서 5,927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대면서비스가 수반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금융 및 보험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하반기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다.

그러나 서비스업 6월말 현재 잔액은 22조4,037억원으로 전체 산업별 대출금 잔액(40조9,269억원)의 54.7%에 달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등 기타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자금용도별로 운전자금대출은 1조 3,387억원에서 8,249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건설업이 증가(-509억원→-2,782억원)로 전환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시설자금대출도 지난해 하반기 7,134억원에서 4,798억원으로 줄었다.  
/서미애 기자

### 전남농협, 나주 공산농협서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장수사진·돋보기 200여 명 서비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와 공산농협(조합장 김승배)이 최근 나주 공산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 30명 이내 소규모단위 인원으로 나눠 진행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산면 관내 어르신들의 무명장수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과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검안·돋보기 지원에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박서홍 농협전남본부장, 박내준 농협나주시지부장, 김승배 공산농협 조합장이 농업인들을 맞이했다.  
농협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행복버스는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장수사진,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력을 잃은 농촌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현재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의 : 062) 233-3999